

나눔터

계간 제32호
1999 · 11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성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영자)
여기는 상담실 장애인 성폭력(조중신)
기획 · 아나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공청회 이후(본 상담소 학내지원팀)
기획 · 둘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오희옥)

성폭력문제연구소 10

남성의 성문화 실태조사(김지혜)
21세기 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포르노/미디어/여성(김이윤상)
성평등 교육문화센터 소통세계의 회복을 일구는 성교육을 위하여(함은희)

성문화 읽기 14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의 성문화(이선영)
살 이야기 함께 걷는 마음, 그 다짐으로... (이병석)
오늘의 쟁점 정신지체 장애인 강제불임수술을 통한 단상

나눔터 게시판 18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의 밤/기금마련 디너콘서트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만드는 세상
 1999.10.27 (수) 오후 7시-9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6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23-1590 열림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3, 576-7124 팩스 02-576-7127
 부산 성폭력문제연구소 02-576-5450

사단
 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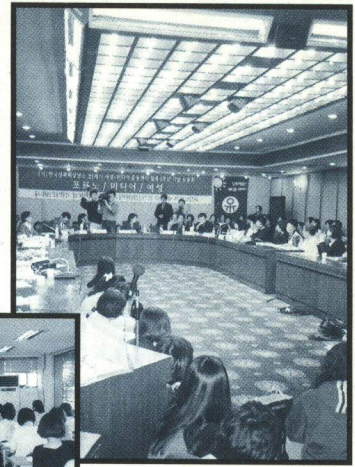


◀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열린터 5주년 기념 세미나 <관련내용 - 8, 9쪽>

▶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 1주년 기념세미나 : 포르노/미디어/여성>

본 상담소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에서는 10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 서 발족1주년기념 세미나(포르노/미디어/여성)를 개최하였다. <관련내용 : 12, 13쪽>



▶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

성평등교육문화센터는 8월9일부터 13일까지 '99 여성 성교육·성상담 교원연수'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직무연수로 지정 받아 실시하였다. 성의 생물학적·사회적·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론과 청소년 감수성에 맞는 교수법, 상담 방법론을 중심으로 짜여진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는 40여 명의 교사와 상담원들이 참여하였다. '성의 상품화와 성윤리', '심대에게 피임과 낙태를 어떻게 가르칠까?', '성적 서비스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실태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왜곡된 성문화가 심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강의가 연일 뜨거운 열의로 진행되었다.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의 밤 / 기금마련 디너콘서트 :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만드는 세상">

10월 27일 상담소 후원의 밤 / 기금마련 디너콘서트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하얏트호텔에서 정은아·한선교 사회로 진행됐다. 김창완, 오정혜, 유열, 장사익, 민병진과 서울제즈카라테미공연단, 신리와 흰바람 그리고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퍼포먼스팀)이 함께 한 이번 공연에는, 이사, 관련인사, 회원, 후원회원, 자원위원, 상담원, 사회·여성단체 등에서 오신 500여 분들이 함께 하였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3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주5회 64시간) 1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이 실시되었다.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의 유형별 상담과정, 법적·의료적 지원체계, 상담사례연구, 가해자연구 등으로 짜여진 이번 교육에는 전국의 상담소, 관련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총49명이 수료하였다. 수료 후 본 상담소에서 활동할 상담원은 경찰청, 재판, 싸이코드라마 등의 참관교육과 심리검사, 상담참관 교육 등 2주간의 심화교육을 받은 후, 11월부터 본 상담소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공청회>

본 상담소는 대학내 성폭력문제의 예방과 사건해결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는 공청회를 9월30일 이화여대에서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는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을 발표한 교육부, 관련정책을 준비중인 학생처, 학내 학칙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학단위 - 세 주체가 대학내 성폭력정책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공청회에 참가한 학생, 학교관계자들은 설문지를 통해 공청회 이후 필요성 있는 학내정책이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관련내용 - 7쪽>



▶ <상담소 전체 아우회>

모두가 함께 모여 그 뜻을 다지고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자리는 항상 그 웃음이 있어 행복하다. 9월 4일 양재시민의 숲에서 열렸던 상담소 전체 아우회는, 어느 자리에서든 평등한 세상됨을 꿈꾸며, 상담소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간의 힘겨움을 풀어내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번 아우회에서는 자원활동가와 실습생, 봉사생, 회원, 후원회원, 상근자 등 모두 50여 명의 식구들이 함께 했다.

▶ <직장남성의 성문화 실태조사>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심대 매매촌의 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경험, 그리고 현재의 정책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20대 이상의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4건의 인터뷰내용과, 286부의 설문지로 진행됐다. <관련내용 - 10, 11쪽>

▶ <제30기 사법연수원생 사회봉사 연수>

제30기 사법연수원생들의 사회봉사 연수 프로그램이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연수과정은 사법연수원생들이 각 지역의 민원실, 시민단체, 사회복지 법인 등에 지원하여 법률상담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상담소에는 5인이 지원하여, 성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과 토요법률상담 참관, 법률상담 검토, 온라인 성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 자료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담지원체계의 한 부분인 법적 지원부분에 연수생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특히 현재 후속 프로그램으로 사법연수생들이 토요법률상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낳았다.

성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영자 | 가톨릭대학 사회학

오늘의 소비자본주의사회에서 성(sexuality)은 쾌락주의의 대명사로서 그 위력이 더 더욱 높아가고 있다. 전자통신시대는 국경과 검열을 뛰어넘어 날로 새로운 성 오락물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열어놓았다. 의학기술은 나이와 신체적 조건의 제약을 넘어서 무한정 성을 즐길 수 있는 시대를 구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성산업을 더 크게 번창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몸의 철저한 관리가 현대인의 점점 더 중요한 일과로 자리잡아 가는 것 역시 성쾌락주의의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성의 소비가 무한대로 증대하는 것이 마치 소비자본주의의 승리를 대변해주는 것과도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여성운동가들은 이러한 성 쾌락주의시대를 예찬하는 대신에 왜 성폭력과 같은 범죄문제에 매달려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국가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여성운동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인가? 더구나 성폭력을 미화하거나 자극하는 성상품화가 사회적 규제력을 비웃을 정도로 자본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마당에 여성운동은 과연 이러한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겠는가? 인권이 증진되고 사회관계의 민주화가 향상되고 있다는 현대에서 성이 점점 더 권력과 폭력의 도구로 작용하고 성폭력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오명의 낙인과 갖가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 현실의 음모를 과연 뿌리 뽑을 수 있겠는가?

여성운동은 바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그

동안 힘든 투쟁을 벌여왔다. 그 결실로 관련법의 제·개정이 있었고, 의식과 여론의 변화를 주도했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큰 숙제로 남는 근본문제는 성폭력을 당연시하거나 조장해온 우리의 가부장적 성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동시에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성산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있다. 사실상 이는 거창한 작업일 뿐 아니라 그 결실을 쉽게 가시화하기 어려운 장기적 노력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바로 그 때문에 성문화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한국에서의 성문화운동은 성을 단순한 본능적 표출이 아닌 쌍방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서 재개념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가 허용되어온 문화적 토양의 소산이라면, 성문화운동은 인간의 성을 쌍방간의 인격적·정서적·육체적인 의사소통의 요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전까지 성이 정복과 소유의 도구가 되거나 가학적·자학적 쾌락의 공모관계와 가해와 피해의 갈등적 관계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해온 것은 결국 성을 통한 의사소통의 문화가 왜곡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관계에서 폭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남성적 지배와 권력으로부터 성(sexuality)을 해방시키려는 여성운동은 여성과 남성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노력이다. 이는 결코 남성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동반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성의 성을 인간적인 성문

화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남성의 자존(自尊)을 바로 세워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즉 지금까지 남성이 상대가 되는 여성을 지배와 강제 대상으로 삼아 성쾌락을 즐기는 가부장적 성에 길들여져 왔다면, 이것은 상대를 비하하는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용납함으로써 남성 스스로가 비인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곧 자기존중을 의미한다고 할 때 상호 인격적 존중을 전제하지 않은 성관계는 쌍방 모두에게 인격적 훼손을 초래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가부장적 성은 쌍방간의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을 무시하는 남성중심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성관계와 그러한 성경험의 자유와 특권의 향유를 '남성적 성'으로 예찬해온 것에 그 근본 모순이 있다. 이 '남성적 성'은 여성과 남성이 진정한 의미의 상호교류와 결합을 통해 생산적인 성관계를 창조해내는 성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모(不毛)관계의 성을 치유하려는 여성운동은 결코 여성들만의 과제일 수가 없으며 오히려 남성들에게 더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성문화운동은 한편 자본주의적 성 향락주의가 조장하는 반여성적인 성적 욕망과 취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능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성에 의거한 성쾌락을 미화하는 성산업은 가부장적 성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여성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해방'의 노예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성 쾌락주의가 만연할수록 성은 인격적 교류나 의사소통과 점점 더 멀어지고 성의 소비로만 몰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성의 소비는 성의 교환가치, 또는 인간간의 상품거래에 치중하는 성문화 속에서 인간적인 성의 의미를 아예 실종시켜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다. '성해방'을 만끽하고 성 향락주의에 맞을

들인 십대에게 성은 이제 한낱 '유희'일 뿐이라고 한다. 성의 윤리는 시장의 논리 속에 함몰되어 버린 채 성을 유희로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환영받는 시대로 변해간다.

성의 유희화는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적 관계에 입각한 성의 개념 자체를 조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성 유희를 위해서는 인간 자체를 무시하고 비하할 수도 있으며, 성을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것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성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것, 인간이 성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심한 성적 소외를 경험하게 될 소지가 많다.

가부장적 성과 자본주의적 성 향락은 여성을 보다 자발적인 성의 노예로 만드는 데에 의기투합하기 때문이다.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 유희가 마치 여성의 성 쾌락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것처럼, 또는 여성이 성 유희에 적극 가담하고 동조하는 것이 마치 여성주체화의 한 방편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 오늘의 사회적 분위기이며 이는 여성들을 혼란 속에 빠트린다. 여성운동은 바로 이 혼란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성문화운동은 여성운동이 그렇듯이 여성과 함께 남성을 구제하는 문화운동이다. 앞으로 여성은 점점 더 성적 주체가 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여성을 객체화해온 '남성적 성'을 감내해 온 과거는 되풀이되기 힘들 것이다. 반면에 여성의 성적 주체화는 여성을 왜곡된 성 향락의 동조자로 양산하는 자본주의 성산업에 의해서 오도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결국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성적 소외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성문화운동은 바로 이로부터 성을 구해내는 것, 그래서 성이 양성간의 관계를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되도록 새로운 성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눔터**



장애인 성폭력

조중신 | 본 상담소 일반상담부장

정신지체
여기서

며칠 전 시각장애인을 돕는 자원활동가 한 분이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왔다.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이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하고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거부하거나 외부에 드러냈을 경우 부당한 해고나 따돌림 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사연을 전했다.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대책강구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본 상담소 상담사례 중 장애인 피해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난한 일인가는, 신체의 부자유스러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없고, 정신적인 질환이나 지체로 인해 판단능력이 미약하여 자신의 피해를 피해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사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장애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네사람에 의한 정신지체 어린이의 성추행 피해

지능지수 60인 정신지체 여아. 어머니가 늘 등하교길에 동행을 하다가 하루는 일이 있어 아이에게 학교 앞 가게 의자에 앉아 기다리라고 함. 아이가 가게 아저씨가 준 과자를 먹고 있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온 이후 가끔 그 가게를 들러 과자를 얻어먹고 옴. 아이가 아무 데서나 자위하는 걸 본 어머니가 가게 아저씨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해온 사실을 알고 따졌으나, 성하지도 못한 아이 말을 믿느냐며 오히려 펄펄 뛰며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됨. 아이가 일관성있게 진술하지 못하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가게아저씨는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였다고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곤 하여 결국은 피해자측이 이사감.

2. 동네사람에 의한 정신지체 어린이의 강간 피해

12세 정신지체 여아. 어려운 집안 형편인데 돈을 갖고 다니며 군것질을 자주하는 걸 본 동네 아주머니가 여아에게 물으니, 시장의 어떤 아저씨가 몸을 만지고 돈을 줬다는 것. 이를 부모에게 알렸지만, 성치 못한 것도 가슴아픈데, 그런 피해를 어떻게 떠들고 다니겠느냐, 고소해봤자 아이에게 고통만 주고 창피만 당할 것 같고 가해자에게 해코지 당할까 무섭다며 그냥 덮어두겠다고 함.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냥 놔두면 안된다고 의논을 하는데, 이를 안 가해자가 동네에 소문

을 퍼뜨렸다고 욕을 해 싸움이 벌어짐. 가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떼어와 동네 아주머니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성폭행사실을 알고 악질이라며 가해자를 구속하자, 가해자가족들이 피해자 집에 몰려와 피해진술을 못하도록 협박 함.

3. 시각장애인학교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성추행 피해

13세 약시 여아. 학업에 지장이 많아 5학년 때 이 학교로 전학. 6학년 때 남자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의 장애특성을 이용해 수업시간에까지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함. 참다못해 엄마에게 얘기하여 고소. 알고 보니 이 교사는 학생성추행 전력이 있었음. 이런 사람이 교직에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실형을 받게 하겠다고 하자 가족을 동원하여 밤낮으로 합의해달라고 쫓아 다녀 가족들이 다른 집으로 피신.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분개하더니 학교이름이 신문지상에 들먹거리지는 것이 뭐가 좋겠냐며 모질다고 비난함. 특수학교라 같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끝까지 버티기가 힘들어 1심 선고 전달 하는 수 없이 고소취하.

4. 친부에 의한 정신지체 어린이 성추행 피해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은 6살, 8살 자매. 어머니도 생계를 꾸려갈 정도의 지적능력만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아내를 구타하고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외삼촌이 뒤늦게 알고 이혼을 시켜 외갓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성추행 당한 행위를 어린 사촌동생에게 자꾸 하려고 하자 외숙모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여 특수아동을 수용하는 보육시설로 보냄.

5. 복지시설 관리자에 의한 정신지체 여성의 강간 피해

휠체어를 타고 지내야 하는 20대 후반의 정신지체 여성. 재활을 위한 수용시설에 입소, 시설에 근무하는 30대 남성이 친절히 대해주자 사랑이라 믿고 여러 차례의 관계를 가짐. 이후 쌀쌀하게 대하는 그가 기혼자이며 성적유린이었다는 걸 깨닫고 가족에게 얘기함. 가

족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하고, 그 시설책임자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6. 보육시설 관리자에 의한 장애인·청소년 성추행, 강간 피해
시설 관리자가 수용된 정신지체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강간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친권자나 처리능력이 없고, 보육사들도 사실을 알고 있으나 직장을 관둘 각오가 안되어 드러내기 겁내고 있다며 보육시설 보육사가 상담을 청함.

7. 이웃남자에 의한 언어장애 주부 강간피해

청각·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30세 주부. 집에 아무도 없을 때를 틈타 침입한 이웃남자에게 강간을 당함. 혼자 고민하다 그 남자의 집으로 따지러 갔다가 또 강간을 당함.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동생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가 없다며 수화가 가능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함. 언니가 수사과정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워하며 고통스러워한다고 여동생이 상담소에 도움을 청함.

8. 선본 남자에 의한 언어장애 여성의 강간 피해

27세의 언어장애 여성. 어머니는 집을 마련해준다는 조건으로 비장애인과 선을 보게 함. 선 본 남자는 그날로 여관에 데려가 성관계를 강요 하였고, 몇 차례 만나는 사이에 혼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게 됨. 갑자기 남자가 도저히 결혼을 못하겠다고 만나기를 피하자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찾아가 매달리다가 수모를 당하고 음. 어머니는 장애인에 대한 간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상담을 청함.

9. 시누이 남편에 의한 정신지체 여성의 강간 피해

정신지체 부부. 남편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인데 부인이 임신이 되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시누이 남편이 지속적으로 강간해온 사실이 밝혀짐. 그 동안 일만 시키고 혹사시켜온 시택에서는 이를 알고 내쫓음. 친정에서 가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이 분명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를 함.

10. 모르는 사람에 의한 정신질환자 주부 강간 피해

정신질환을 가진 주부가 친정에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실종됨. 며칠 후 강간치상이 된 몸으로 겨우 귀가하였는데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당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여 가족들이 비탄과 충격으로 힘들어함.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피해는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1. 협박이나 폭력보다는 애정을 위장하거나 유인하는 방법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평소애 애정과 관심을 받는 경험보다는 소외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표현에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계속 유린한다.

2. 장애인 피해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변 지원체계가 빈약한 상태다. 장애에 대한 외부 노출을 꺼리며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살피는데 소홀하고, 법적 고소·가해자 처벌·금전적 보상 등 사건해결 중심적으로 대처할 때, 피해자는 소외되곤 한다. 피해보상을 받고도 피해자의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보여졌다.

3.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중처벌이 가능한데도, 사전정황을 일관성있게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어려움을 염려하여 그냥 덮어두려는 경우가 많다..

4. 통찰이나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이 건강하게 표출되지 못하고, 성적 피해 시 임신 등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 장애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 상담, 치료, 지원하는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1.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튼튼한 지원체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심리치료, 재활작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본 상담소는 사건에 따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연합 등과 연계하거나 공동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외에, 보호자가 장애인이어서 그 자녀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나 대응을 못하고 무력한 경우가 있다. 이때 친척, 이웃사람, 종교기관, 지역 사회복지사, 장애인 권익단체 등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한계와 기준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성폭력 가해자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이때는 형사적 처벌보다는 가해자 교육, 격리와 치료, 가해자보호자에 대해 이사, 전학, 보상요구 등이 대두되고 있다. **나눔터**

98년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에서는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조항'을 통해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해 수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또는 제 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친고죄이다. 이는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강제가 필요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를 가한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공청회 이후



본 상담소 학내지원팀

을 7월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른 대학내 성차별,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각 학교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그 동안의 관련정책 유무에 상관없이 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현실이고, 또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관련 학칙을 제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정된 학칙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실제 피해사건 발생 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학칙제정을 준비중인 학교에서도 정책수립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외되는 등 내용과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에서 피해자 혹은 예비 피해자, 그 동안 학칙제정운동을 벌여왔던 여학생운동단위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 전시를 위한 줄속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직원, 피해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 하겠다.

이번 공청회는 학칙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러한 내부적 필요성과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른 교육부 지침 발표라는 외부적·시기적 상황에 맞추어 '대학내 성폭력문제의 예방과 사건해결'을 위한 정부와 각 대학의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공청회는 학내성폭력의 발생실태와 원인, 대학내 성폭력 사건대응과 지원사례, 학교당국의 관련정책, 교육부 지침, 교육부, 학교정책에 대한 학단 위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학교관계자로 나온 서울대 학생부처장은 최근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직원구성이 단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직접 적용하기엔 사실상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서울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중이지만 전담요원의 배치 등 상담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 교육부의 업무요령에도 기존자원을 활용하게 되어있는 등 문제가 있어 성폭력문제만을 전담하는 상담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민·형사 문제로 성폭력사건이 발전되었을 때 대학의 역할은 없으며, 따라서 사건이 확대되기 전 조정을 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상정하

는 등의 학교관계자 입장에 대해 밝혔다.

이에 대해 학단위에서는 교직원이나 시간강사 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서 대학 자체의 처벌에 한계가 있다면 외부단체나 교육부 등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 '성폭력근절'은 '교육환경 개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구호임을 역설, 성폭력적 환경을 방치해온 학교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다.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른 교육부지침에 대해 학단위 측에서는 법안이 권고사항으로 머물러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문제, 성희롱 용어의 정의가 성적자기결정권의 측면이 아니라 업무방해 등 고용상의 문제로 축소된 점, 성희롱 등 성차별을 언어적·신체적인 면만으로 부각시킨 점, 성폭력 처리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인 피해자의 주관을 간과한 점,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학내의 전체적 남성중심적 문화-남성 위주의 수업이나 편의시설, 학내 행사 등에서 나타나는 -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학내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 학교당국, 여학생운동 단위 세 주체가 각각의 입장에서 관련정책의 필요성 및 담보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만큼 정책에 접근하는 각각의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고, 동시에 서로의 입장과 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또한 학내 성폭력에 대응하는 정책 현황을 알려내고 정책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에서 담아야 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교와 외부단체의 학내정책수립사안에 있어서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교육부, 학교당국의 이후 정책 진행 상황 모니터, 학칙제정 시 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계속된 네트워크 모색, 대학 담당자들을 위한 특화교육, 성폭력 문제를 고민하는 자체조직이 없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각 학교의 정책실태 및 실행여부 등에 관한 공개 토론회 등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제안을 이후에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후속작업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시도가 과제로 남는다. **나눔터**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오 희 옥 | 본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부장

'모든 피해여성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 라는 의미의 열림터는 1994년 개소한 이래, 친족에 의한 지속적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리고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피해여성의 보금자리가 되어 왔다.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9월14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내담자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견지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성폭력피해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들의 경험과 애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그를 기초로 열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와 지향해야 할 모델을 구상하여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1부에서는 열림터 운영현황과 과제, 내담자 유형에 따른 지원현황, 미술치료, 내담자의 삶 이야기, 2부에서는 심리·의료·법률·정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숙고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열림터 운영현황과 과제〉에 대해 열림터 이미경 시설장은, 열림터의 기능과 운영방식, 5년 동안의 활동현황 및 내담자 지원현황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와 개선방향을 짚었다.

5년 동안 열림터 내담자는 121명으로 가족과 재입소자를 제외한 총 피해자는 85명이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74%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98%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으며, 그 중 64%가 친부에 의한 피해였다. 입소 연령은 83%가 19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이었으며, 피해발생 1주일 이내에 입소한 경우는 단 2%로 대부분 오랜 기간 피해가 지속되어 온 사례이다. 그리고 피해 내담자의 고소율은 42%로 일반 성폭력상담의 고소율 6.1%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림터 입소기간은 3개월 이하가 82%로 가장 많았고 퇴소 후에는 본인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장기보호시설, 친척집 등이다. 이미경 시설장은 열림터 내담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의료적·법률적지원, 학교지원, 프로그램지원

등을 소개하고, 열림터의 운영과제와 개선방향으로 (1)상담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 (2)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보호혜택과 피해자 지정병원 활성화 (3)원활한 학교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단기 보호시설의 한계 (5)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따른 문제 (6)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부족 (7)적극적인 후원금 마련활동 (8)관련 연구들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내담자 유형에 따른 지원현황〉에 대하여 열림터 오희옥 부장은 각기 내담자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함으로 내담자들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유아 및 어린이 피해자들은, 어머니나 그 외의 보호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겸하고 가정문제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일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이중감정을 극복하고 순결상실감을 비롯한 왜곡된 성 지식을 바로잡는 것을 돕기위해 심리적인 상담과 성교육을 실시하며 동시에 앞으로의 진로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게 된다. 내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관계와 자립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상담과 지원을 한다. 오희옥 부장은 한 내담자 가족의 사례를 바탕으로 심리·의료·법률·학교 및 프로그램지원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내담자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야기하며 열림터는 그들에게 중요한 전환기가 되고 힘이 되어 왔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열림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권은정 선생님은, 〈열림터 미술치료〉에서 미술이 의식적·무의식적인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술활동을 통해서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자기표현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써 내담자들이 미술치료에 참여하는 모습과 작품을 슬라이드로 보면서 각 작품의 작업과정과 내담자의 반응, 치료효과 등을 펼쳐나갔다. 탐색·관계형

성·내적 감정의 표현·자기인식·사회화의 관계·만들기 등의 유형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 이러한 활동이 각 개인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음악·연극 등의 표현활동과 접목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현재 열림터에서 아픔을 이기며 꿈을 키워 나가는 한 내담자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피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정당해지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한다며, 선뜻 그리고 확고히 자신의 발표를 준비해 있었다. <우나의 일기>에서는 내담자 자신의 삶과 친족성폭력이라는 사건, 극심한 심리적 아픔과 혼란, 자포자기, 열림터에서의 지지와 공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날개 짓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들려주었다.

휴식시간 후 진행된 종합토론의 첫 번째에서는 미8군병원 오현숙 정신의료사회복지사가 <열림터 내담자의 심리상담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현숙 정신의료사회복지사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후유증, 성학대를 받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행동적 지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심리 상담 시의 치료적 이슈들, 개별이나 집단 상담 또는 치료 시의 전략과 유의사항, 심리적 지원 연계망 확대를 위한 방안과 상담소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집단치료의 제공이 중요하며, 특히 자조집단의 활성화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지지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두 번째로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은 <열림터 내담자의 산부인과적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내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치료를 위해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열림터 내담자 중 38명이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박금자 원장은 피해자의 특징, 산부인과의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현재 산부인과 조치에서의 문제점, 의료적 지원 연계망 확대를 위한 방안 및 내담자 연계 시 요구되는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내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상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원이 기초 자료를 준비하여 병원에 연계하고, 현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의무사항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지원연계망을 확대하며, 의료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피해 치료비를 국가의 예산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힘주어 제언하였다.

세 번째로, 열림터 내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무료법률상담을 지속하여 온 본 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인 장철우 변호사는 <열림터 내담자의 법률적 지원 현황과 과제>에서, 상담소가 열림터 내담자들에게 해온 법적 지원의 실태

와 성과를 살펴보고, 상담소 및 열림터가 보다 나은 역할수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열림터 내담자의 고소의 경우, 일반의 범죄에 대한 고소는 물론 다른 성범죄 고소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으므로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요구사항도 참작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원 내용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과 죄책감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김으로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 시 하는 통상적인 질문사항들을 미리 상담원들이 숙지하고 그에 맞추어 상담을 해보는 것과, 내담자가 태도변화를 보일 때 상담소가 이후에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올바른 수사법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김점자 여성보건복지과장의 <성폭력피해자보호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에서는 '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수 차례 법령이 개정되면서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충분치 못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헌신적 노력이 계속되어져 왔다고 말했다. 차후 피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종합상담체계의 구축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대 국민 홍보강화 및 국민의식 변화 유도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에는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실무자, 각 상담소 상담원을 비롯하여 중등교원, 기자,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번 행사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였으며 참여소감에 대해 매우 유익하였다고 말하였다. 행사장에는 내담자들의 만들기 작품과 심리검사의 일종인 HTP가 전시되어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며, 행사 후 떡과 샌드위치 등 다과를 나누는 시간에는 참여자간의 만남과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서 가장 언니인 열림터가 5년 동안의 활동을 내보이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족했던 부분,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열림터가 앞으로 풀이갈 숙제를 가슴 가득히 안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반적인 현황과 과제를 파악한 이번 세미나를 기초로 앞으로는 각 분야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눔터**



남성의 성문화 실태조사: 성산업에 유입된 청소년에 대한 경험과 태도를 중심으로

김지혜 |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청소년들의 향락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매매춘, 원조교제 등은 최근 몇 년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미비한 실정이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의 보도나 조사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문제로, 또한 매매춘 여성 등의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주요 수요자인 남성들의 경험과 문화의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는 성인 남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된 십대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어떠한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5월~10월에 걸쳐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대학생 제외)의 성인 남성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와 설문조사법을 통해 들어온 14명의 인터뷰 결과와 286부의 설문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이 조사내용 중 향락업소의 이용실태, 성산업에 유입된 십대 청소년에 대한 경험과 태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향락업소 이용실태

향락업소 이용은 전체 응답자 286명 중 243명인 85%로 나타나 성인 남성들에게 향락업소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향락업소의 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적접촉의 일상화: 향락업소에 가는 것은 술을 마시고 집단 소속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지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놀이와 접촉이 병행된다. 따라서 단순히 시중을 들도록 되어 있는 여종업원은 그날의 손님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 다양한 종류의 성적인 놀이들이 행해지며, 이러한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남성들에게 향락업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성적인 접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매매춘으로의 연장: 성적놀이와 성적접촉이 일상화된 분위기 속에서 향락업소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여성이라기 보다는 남성 자신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자극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2-3차로 불리워지는 매매춘으로 연장되기 쉽다. 이러한 공간에서 향락업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은 응답자 286명 중 148명으로 6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 남성문화: 그러나 모든 남성들이 이렇게 매매춘으로 이어지는 모임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따르거나, 빠지고 싶지만 분위기를 깰까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은 공식적인 사회규범상 금지되어 있지만 주변에 확산되어 있는 기회는 남성들에게 매춘은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없애주므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따르게 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위기를 깰까봐'로 대변되는데, 이는 친구이든 회사 동료이든 향락업소의 이용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고, 특히 직장 회식으로 향락업소를 이용하게 된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집단적인 남성들의 문화는 암묵적으로 매매춘을 강요하게 되고, 매매춘에 대한 확고한 거부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남성들은 이러한 문화의 행위자가 된다.

권력실현의 장: 향락업소는 남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받은 긴장감과 무력감, 스트레스를 푸는 장이며 여종업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실현하는 장이다. 따라서 권력의 실현이 용이하고, 자신들의 손상된 남성다움을 보상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여종업원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여종업원일수록 보다 성적 접촉이나 노출에 노골적이며, 술을 파는데 적극적이며, 남성들의 통제력이 미치는 범

위는 적어진다. 따라서 남성 고객들은 어리고 순진해서 말을 잘 듣는 젊고(어리고), 경험이 적은 여종업원을 원하게 되고, 이러한 젊은 여성 선호는 침대 청소년들을 향락업소에 유인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3. 성산업에 유입된 침대 청소년

향락업소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향락업소에서 확실히 침대 청소년들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8%, '잘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경우가 41.6%로 나타났으며, 여종업원에게 나이를 물어봤을 때 16-19세라고 응답한 경우는 33.8%, 20세가 22.5%, 21세가 14.2%, 22세가 13.2%, 23세 이상이 16.2%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렇게 나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만 00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20-21세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성년자는 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일부러 나이를 올려서 대답을 하고, 고객들은 이를 별로 개의치 않으므로 이들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21세라고 응답한 경우 실제 미성년일 가능성이 크고, 위에서 '잘 모르지만 미성년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6%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성인남성의 70%는 향락업소에서 미성년자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

4. 성산업 유입 청소년에 대한 태도

성산업에 침대 청소년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를 반대, 상대적 허용, 허용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정도와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대: 조사 대상자들의 대다수는 침대 매매춘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85.7%)고 생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침대 청소년들의 성산업 유입에 반대를 하는 것은, 그들이 '침대'이기 때문이며 청소년은 가치관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판단이 미숙하며,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침대와의 매매춘이나 원조교제는 '인륜을 거스르는 패륜', '도덕 불감증' 등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침대들의 성산업 유입에 반대 입장을 가진 것과는 달리 이들 대부분은 성인 매매춘에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나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 입장은 침대 청소년들의 성산업 유입에 대한 반대일 뿐 성인들이 성산업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상대적 허용: 침대 매매춘이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

의 문제가 될 때는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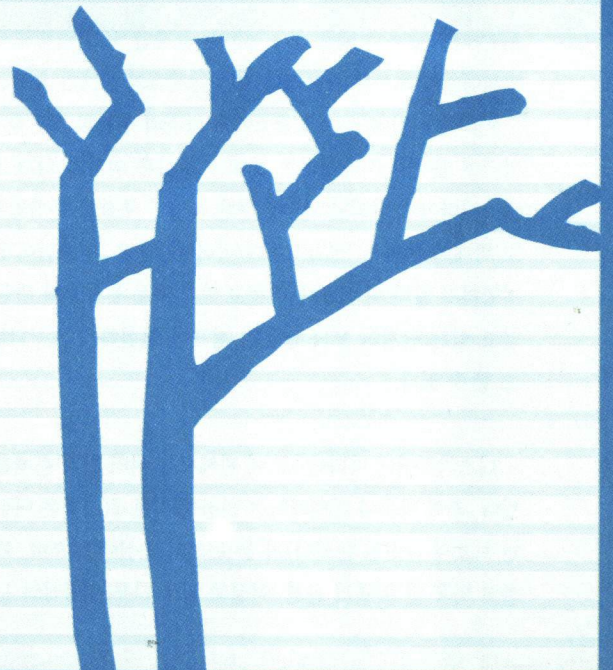
향락업소에서 침대를 본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응답자는 16.8%에 지나지 않았으나, 만약 딸이나 여동생이 향락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대 못하도록 한다'가 90.9%로 대다수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에게 침대와 매춘의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6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동료나 친구가 침대와 매매춘이나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말린다는 경우는 23.8%에 지나지 않았다.

허용: 허용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나 억압없이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매매춘의 문제는 개인들의 선택의 문제이며, 연령에 의해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침대 매매춘에 대한 허용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금지조치는 더 강한 욕구를 만들게 되고 제도적인 금지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므로 소수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마치며

남성들은 성의 상품화나 매매춘, 이중적인 성에 대한 의식의 수용도가 높고 동시에 이들에게는 향락업소의 이용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러한 의식과 경험들은 침대 청소년이 성산업에 유입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무리 남성들이 침대 청소년들의 성산업 유입을 반대하지만, 그럴수록 의식과 경험의 괴리는 커질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침대 청소년들의 성산업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성들의 문화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수적이고, 침대에 국한되지 않는 성산업 전반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준다. **나눔터**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발족 1주년 기념 토론회 포르노/미디어/여성

김이윤상 | 본 상담소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부장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한 단면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본 상담소에서 내담자를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힘을 쏟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1년 전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의 문을 연 것도 성폭력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유지시키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사실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량생산과 대량배포가 가능한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양상은 개인의 개인에 대한 것에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성산업화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산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대중 전달매체로서, 이들은 왜곡된 성문화의 대량생산과 대량배포 기구로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문화의 대량소비를 위한 촉진 기구로도 기능하고 있다. **발족선언문 중**

지난 1년간의 활동은 미디어 운동과 여성운동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단체에서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모니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이 기존 미디어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진작부터 필요한 일이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러 여성단체에서 미디어 운동을 열심히 진행시켜 왔지만, 여성단체가 연대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여성단체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상담소에서 그간의 성문화 개선활동을 토대로 미디어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에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성'에 관한 논의가 주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논의는 "선정적이다/아니다", 혹은 "청소년에게 적합하다/적합하지 않다"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문화 관련 활동에 몸담고 있는 단체의 보다 전문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흔히 방송과 관련해서는 선정성의 문제(이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논의다)가 늘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이 외에도 표현의 자유 및 검열의 문제, 여성의 성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 등이 주

요한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본 센터에서 포르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유포하는데 우리사회의 포르노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포르노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의 여성운동 진영이나 미디어운동 진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포르노는 음성적으로 워낙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고, '청소년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의제나 운동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주제와 운동 방법론이 개발되고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는 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 <포르노/미디어/여성>은 본 센터에서 포르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요한 테마로 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알림의 자리이면서, 포르노를 '문제화'하는 다양한 입장을 함께 이야기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날의 토론회는 미디어 섹스의 현안(전석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포르노그라피와 표현의 자유 한계(박형상, 변호사), 포르노, 페미니즘, 성 정치학(공미혜, 신라대학교 여성학), "가까워진 포르노",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의 발제로 진행되고, 배금자(변호사), 원용진(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 황정미(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포르노 정의의 문제(이 문제는 특히 법적 규제 혹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규제 근거의 문제(규제의 목적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있는지, 아니면 성차별적 표현물을 규제하여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는데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건전한 미풍양속을 지키는데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등),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입장을 정하고 행동방침을 세우는데 발생하는 문제(성차별의 문제 때문에 포르노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본의 아니게 우익 권력집단과 연합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므로), 포르노에 대한 사회·정치적 간섭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의 문제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성(性), 인터넷 웹사이트의 60%가 포르노, 모든 전자상거래의 80%가 성인물 판매, 최다 검색어 등록, 섹스 시뮬레이션 게임의 범람, 정보서비스의 top 10에는 항상 성인 정보, 구글을 끼고 데이터클럽과 바이브레이터를 착용한 버추얼 섹스(Virtual Sex)의 현실화

- 사이버 에로스의 세계1)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의 성문화

이선영

현재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논의들을 크게 나누자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섹스(Cyber Sex-Virtual Sex)의 실현성과 관련된 인식적·기술적인 논의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유통과 소비, 그리고 온라인 성희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를 구성하고 현재 기술을 발전시킨다거나 그 내부의 정보를 축적하는 주체로서 남성들의 이해와 욕구만을 반영하고 그들의 질서를 구현하고 있을 뿐 여성참여자들의 이해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이버 포르노그래피의 효율적(?) 유통 공간이며, 온라인 성희롱과 같이 여성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의 남성 중심적 질서의 확대재생산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1. 사이버 섹스

네트워크 기술(Network Technology),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Digital Image Processing Technology) 그리고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의 결합은 지금까지 영상물들이 추구해온 완벽한 환영을 만들어내고 있다. 만일 가상 현실 테크닉을 이용한 상호작용 멀티미디어와 결합된 원격통신(Interactive Tele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비육체적 접촉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소리와 이미지와 '행위'까지를 결합하는 다차원의 감각이 소통될 수 있게 된다면, 사이버 섹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²⁾. 이러한 가상 섹스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1960년대 미국 정부의 주도 아래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시행되었던 'intersex' 프로젝트일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해외주둔의 미군들에게 성병의 위험 없이 시뮬레이션된 섹스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³⁾.

이 시도들은 테크놀로지 개발의 기본적인 논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인터넷이 실제로 미 국방성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전시에 파괴되지 않을 연결망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알파넷(ARPANET)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사이버 섹스 역시 군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테크노 정신대였던 셈이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속도, 그 내용은 어떠한 이익집단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개발을 주도하는 집단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이다. 남성 기술자들에 의해 개발되는 사이버 섹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에서도 역시, 남성적 욕구를 중심으로 개발될 것은 자명하다. 여성의 성적 특성이나 욕구와 상관없이 남성의 성적 특성과 요구 이해를 반영한 사이버 섹스 장치의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 섹스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컴퓨터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행위자는 남성으로, 그리고 그 대상은 여성으로 상정되어, 남성 게이머의 조작에 따라 성적으로 성취되는 수동적 대상으로서 여성의 모습을 학습시키고 있다.

2.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공간보다 영상물 수용에 있어서 윤리의식이 무더진다. 사이버 공간은 음란문화의 안전판 거주지가 되어가고 있다. 성인들은 신기하고 극도로 감각적인 사이버 음란물을 무절제하게 탐닉하고 있으며, 그러한 영상물을 수용함에 있어서 가치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VR)기술, 상호작용 기술, 네트워크 기술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음란 영상문화의 미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사이버 영상물 수용에 있어서 정체성의 부재를 보여준 예가 'O양 비디오 사건'이다. 음란 영상물이 이전과 다르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 디지털화된 영상으로 파급되었다.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인 O양의 사생활이 본인의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음란물 유통공간에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O양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반향이 컸을 뿐, 우리 사회에는 그와 같은 피해자가 수없이 많다.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여대 교수와 학생의 음란물, 여대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몰래카메라가 인터넷 상에 공공연히 나온다. 무차별적인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속도가 아주 빠른 음란물 유통 공간에서 말이다.

이러한 포르노그래피의 확장은 사회적으로 잠재의식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불평등한 성역할, 성차별의 근거, 성폭력을 표현한다. 이러한 사이버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정부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⁴⁾들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음란 사이트를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현실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와 '포르노 규제의 논리적 근거'와 함께 '어디까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

3. 온라인 성의롱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윤리의식의 부재는 단순히 음란물의 접근과 소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용자들간의 대인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흔히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도 대인적 상호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PC통신의 채팅 과정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2년에, 채팅을 통한 성적 모욕에 충격을 받아 자살한 한 여중생의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많은 수의 여성들은 채팅이라든가 게시판 참여 시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이러한 성적인 접근과 시도, 즉 검색⁵⁾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PC통신상의 성적 대화를 성적 문란함으로 보는 도덕주의적 입장과 성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봄으로써 검색은 폐쇄적인 공식적 성규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등장하였고,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자들간의 자유로운 성적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PC통신상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대화에서 이용자들이 모두 동일한 성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 또한 다르게 구성될 것이라는 점이 누락되어 있다. 실제로 여성사용자들에 있어 온라인 성폭력은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며, 남성 주도적인 사이버 공간의 성별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기제로써 사용된다. 결국 사이버 공간은 기제를 매개로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그 문화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현실세계 질서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온라인의 여성적 전망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에서 여성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이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사이버 공간에서 성별이 제거된 사이보그로서 존재하게 되며, 성별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자신을 구속하는 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난 해방적 경험이 현실세계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은 그러한 유토피아적 공간은 아니다. 남성들에게 선점된 기술공간으로서 남성 중심적 문화(Macho-culture)가 판치고 오히려 윤리의식이 희박한, 보다 성차별적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여성들은 그러나 보다 많은 공동체적 가능성을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가진 주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주부들의 동호회가 만들어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억눌렸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사용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의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달나라 딸세포와 같은 웹진(Webzine: 인터넷 잡지)⁶⁾이라든가, WILL⁷⁾과 같은 여성 네트워크를 위한 단체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단 한 번 참여 의사를 밝히면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을 보내주는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이버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다. 적대적이건, 부정적이건, 음란물로 가득차 있건, 우리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이 공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없다면 내가 끌어 모으면 된다. 끌어 모아서 함께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나눔터**

- 1) http://www.kukminilbo.co.kr/special/xxx/sub2_index.html
- 2) 사이버 에로스의 세계 - 무감각의 쾌락, electronic data at <http://www.kukiminilbo.co.kr/special/xxx/sub2~1.html>
- 3)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성자원자들의 반응들을 비디오, 오디오테이프로 녹음하여 남성대상자들을 위한 시청각적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많은 작업들이 행해졌다.
- 4) ISP: 인터넷 서비스를 국내에 중계하는 서비스 중계업자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코넷(한국통신), 보라넷(데이콤), 넷츠고(SK) 등이 대표적인 국내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라 할 수 있다.
- 5) 검색: 컴퓨터(Computer)와 섹스(Sex)의 합성어인 컴퓨섹스(Compusex)를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서 PC통신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은어이다. 이것은 한국의 PC통신 이용자들이에서 채팅으로 맺는 성관계를 의미한다.
- 6) 달나라 딸세포는 인터넷 상에서 여성들이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반영한 관련 여성학 자료들을 번역, 제공하는 잡지이다. 주소는 <http://dalara.jinbo.net>
- 7) 이화여대 내에 구성되어 있는 여성 네트워크로서 다른 여성학 관련 사이트의 링크되어 있다. 주소는 <http://mm.ewha.ac.kr>

함께 걷는 마음, 그 다짐으로

이 병 석 | 제30기 사법연수생

1 성폭력상담소로

연수원 입소 후 그 동안 공부한다는 이유로 유보시켜 놓았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남과 여의 문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성의 여성 지배관계에 대해서였다. 입으로는 남과 여는 동등하며 차별적 현상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실 생활에서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복종해 주었으면 하는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연수원 생활 중 제기된 몇 가지 문제가 이런 나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다. 물론 남성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남과 여 모두가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 나의 잠정적 결론이었다.

사회봉사 연수기관 중 여성단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별 어려움 없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연수(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지원했다. 계획도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잡았다. 시험이 끝나면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연수기간 중 심화된 학습과 고민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었다. 몇 년 전 보았던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을 다시 보며 제대로 된 해석을 해보자는 부수적 목적도 갖고서.... 그러나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게으름이 그 주된 원인이었지만 더 큰 이유는 명확하게 정리된 이론보다는 유연성과 자유스러움을 가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2 상담소에서 한 일

모두 5명이 상담소로 출근을 했다. 나를 제외하고는 여 연수생들이었다. 상담소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물론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내 주위가 모두 꽃(?)들로 덮여 있다는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다. 완전히 적(?)에 포위 당한 느낌이었다.

첫째 날, 최영애 소장님과 이미경 부소장님, 장윤경 사무국장님과 인사를 나눈 우리는 상담소 제작 자료를 한 부씩 받아 읽기에 들어갔다. 상담소에서의 2주간의 일정은 대부분 교육과 비디오 관람, 토론 등으로 짜여져 있었다. 자료를 읽는 일은 별로 흥미를 끌지 못했고 읽는 등 마는 등 시간을 보냈다. 사실 2주간의 일정을 본 나는 내심 실망했다. 사법시험의 준비과정을 넘기고 들어온 사법연수원은 '서초고등학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부량이 많았고, 1년 차 전반기 시험을 막 마치고 온 나는 여름을 이겨낼 '일'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듯한 연수 일정은 나의 이러한 기대를 무너 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나를 또다시 실망시킨 것은 바로 나의 태도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함

으로써 나의 인격적·상품적 가치가 높아진 듯,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듯, 모든 것을 위에서 아래로 보려는 주관적 우월감을 경계해 왔는데, 상담소에서의 첫날은 누군가 눈치를 챌든 아니든 그런 왜곡된 태도를 잠깐 잠깐이나마 보이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아마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많이 극복됐다고 믿는다. 내 주위로부터 배우는 것은 나의 가치는 이력서 또는 간판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모순에 저항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다음날부터 2주간 나름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정을 따라갔다. 온라인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사하고 토론을 벌였고, 성폭행 사건의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성폭력특별법과 스토킹 법안 등에 관한 토론을 짧은 법 지식이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벌여나갔다. 또 상담소 제작 비디오를 몇 편 보았는데, 상당한 수준에서 설득력 있게 제작된 것이어서 교육과 현실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토론과 비디오 관람을 거치면서 듣고 본 몇몇 성폭력 피해 사례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으며, 신문에서 잠깐 읽었던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며, 성폭력은 내 주위에서 어쩌다 벌어지는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검붉게 멍들게 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저 답답하고 화가 날 뿐이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토요법률상담 참관을 하였다. 변호사와 내담자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법률가로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망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것이었다.

3 맺으며

우리는 이틀간에 걸친 환송회를 성대하게 치루고 상담소 상근자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이별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상담소와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 할 것이다.

성폭력은 남성의 지배적 사회구조가 낳은 기형적 산출물이라 보여진다. 성폭력은 단순히 덜 떨어진 여성들의 개인적 무모함이 빚어낸 것도 아니고, 정신적 이상 증세를 가진 몇몇의 남성들이 만들어낸 미친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물이다. 어떻게 몇 명의 여성단체 또는 여성운동가가 이 짐을 지고 가도록 방관할 것인가.

'내년부터는 남자 연수생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상담소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자연스런 요구였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31기 연수생의 많은 참가가 있기를 기대한다. 단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남자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남동혁**

정신지체 장애인 강제불임수술을 통한 단상

“여성장애인도 한 인간, 여성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아이를 낳거나, 양자를 들이거나,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렇게 애써 외쳐야만 하는 것이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8월,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 83년부터 최근까지 170여명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는 보도는, 그들의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충격과 함께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이다. 실태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출산을 포함한 성적억압과 폭력은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행정당국과 보건당국, 복지시설, 그리고 부모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정신지체인 강제불임 수술이 자행된 것은 너무도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 강제불임수술이 “정신지체장애인은 성에 대해 잘 모를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이 출산한 2세는 틀림없이 정신지체일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것이다”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교육·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적 책임을 간과하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그 문제를 짚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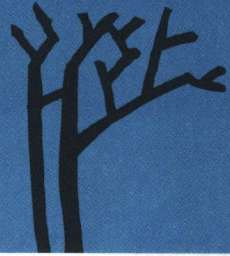
국가의 가족계획정책 사업도 이러한 현상에 일조해 온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이래 인구억제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입장은 대국민 홍보·계몽사업, 각종 혜택부여에 의한 유인, 실적제에 의한 강제 등으로 표명되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과전체를 부인할 순 없으나 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이 무시되고 박탈되었던 점, 그리고 그러한 권리 침해의 주 대상이 여성장애인이었다는 점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목표량 설정 때문에 시설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실적이 좋으면 포상도 하고 해외여행도 보내줬었다”는 가족계획사업 담당자들의 진술은 가입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강력한 가족계획정책 방향이 정신지체장애인들의 불법 강제불임수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한 사회가 갖는 성에 대한 인식, 관행, 그리고 법과 정책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치판단의 기회마저 봉쇄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아프리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핵절개 관습은 25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1억명으로 추산되는 여성에게 행해지고 있고, 또한 산발적이지만 아라비아 반도와 아시아일부 지역에서도 현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체에 관한 자기결

정권이 박탈된 사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20년대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인종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임수술을 해오던 것이 폭로되자 스웨덴 정부는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도 정신지체 등 장애여성 만오천명에게 강제수술을 시행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착수하고, 일본 또한 만육천여명에게 본인의 동의없이 지방자치단체 우생보호심사회의 승인 하에 불법수술을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사죄 및 보상, 그리고 피해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고 한다(〈함께걸음, 1997. 10〉).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루어져서 대안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오늘의 이 정신지체장애인 강제불임 수술사건이 지나가는 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 동안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반성과 나아가 이들의 삶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장애인 육아수당 등을 포함한 관련 복지대책 수립 및 제도화, 장애인 대상의 전문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눔터**



이런 일을 합니다.

<제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 성문화>

1999년 11월 16일 오후 2시 ~ 5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남성의 성문화 실태조사 : 성산업에 유입된 십대에 대한 경험과 의식을 중심으로 | 김지혜(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성문화와 남성성의 구성 | 조영미(이대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남성의 성문화가 십대 여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최정은(은성원 총무)

종합토론 · 문화적 측면 | 정채기(한국남성학연구회 회장) · 정책적 측면 | 이승희(국민회의 전문의원)

<'99 세계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사이버토론회 : 매매춘 여성에게 성폭력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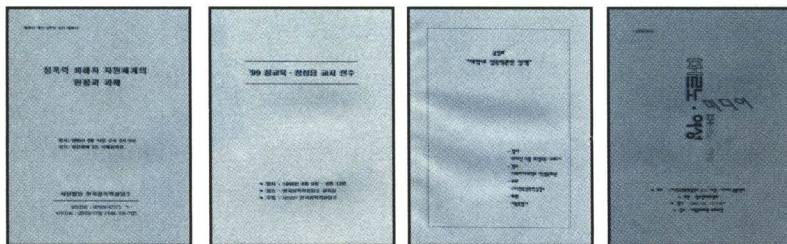
우리사회는 여성에 대해 보호받을 만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사회적 시각은 특히 매매춘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을 때 수사과정상에서 또는 주변사람들의 인식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매매춘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라 할지라도 평소의 행실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매매춘 여성들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따라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일 경우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지" 이에 대해 네티즌들과 전문패널들이 함께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어보고자 한다.

11월 25일 ~ 11월 30일(일주일) / 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넷츠고, 유니텔, 채널아이, 천리안 토론마당

<『섹슈얼리티 강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섹슈얼리티의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 권, 1999)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올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올해 우수학술도서는 98년 7월 1일 ~ 99년 6월 30일 출판된 것으로서 301개 출판사가 심사·신청한 1천 564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9개 분야 265종이 선정되었다.

새로 발간된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열린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 :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열린터 개소 5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과 내담자 지원현황을 돌아보며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가기 위한 기초자료집이다. 5년동안의 열린터 운영현황과 과제, 내담자의 유형에 따른 지원현황, 실제적으로 지원된 내담자 사례, 열린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미술치료, 내담자의 일기, 각 전문가들의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심리상담, 의료, 법률, 정부지원)와 부록으로 그동안 자원활동을 하면서 또는 내담자 생활관리를 하면서 느낀 글들이 실려있다. / 가격 4,000원

<'99 성교육 · 성상담 교사 연수>

폭력적이고 향락적인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성평등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가치관과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99년 여름방학에 실시한 교사연수 자료집이다. 인간발달에 따른 성교육, 교사의 성인식 성찰, 성 말하기 수업, 성의 생물학, 십대에게 피임·낙태를 어떻게 가르칠까?, 청소년 성문화와 성윤리, 청소년 성문화 읽기·말하기, 십대 매매춘의 실태

상담소(열림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시거나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유한캠벌리화이트, 김윤경, 김홍중, 박미영 살롬 미용실, 오희옥, 이희숙, 장윤경, 현소혜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의 밤 / 기금마련 디너콘서트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도움주신 분들입니다.

(주)녹십자, (주)대교, (주)잉크테크, 건영식품(주), 광재형, 국민일보, 김나연, 김용선, 김윤경, 김은희, 김일두, 김창완, 녹십자의료재단, 민치홍, 바이엘코리아진단사업(주), 박금자산부인과, 샘표식품(주), 서울치과병원, 신재기, 애경산업(주), 염은애, 오정혜, 유 열, 유한캠벌리, 유주영, 윤지원, 이선우, 이은주, 이철승, 장경호, 장사익, 전중용, 정은아, 진로쿠어스맥주(주), 진명희, 최성호, 최희주, 하이트맥주, 한선교, 한지원, 허준복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명자, 강우진, 고경숙, 곽은아, 곽은하, 권우정, 김연길, 김영미, 김은수, 김준순, 김현정, 도경숙, 두정학, 박윤숙, 백명자, 백정선, 송인희, 안미영, 안홍례, 오숙자, 우금희, 윤지희, 이금형, 이은정, 이효숙, 장이려화, 정경래, 정옥분, 정이숙, 조태홍, 최성호

7월부터 9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처방안,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상담의 원리와 기법, 해결 중심상담의 원리와 기법 등의 강의 원고가 실려있다. / 가격 8,000원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대학내 성폭력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99년 9월 대학당국, 교육부, 학단위 3주체가 모여 각각의 입장에서의 학내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 자료집은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 대학내 성폭력 사건대응과 지원사례, 서울대학교의 성폭력관련 정책, 학내성폭력문제 관련한 교육부의 지침, 학교당국과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학단위 토론회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첨부된 자료로는 5개 학교 학내성폭력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 결과, 4개 학교의 성폭력관련 규정 비교, 하버드·MIT의 성희롱 관련정책이 실려있다. / 가격 4,000원

<포르노/미디어/여성>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 1주년을 기념하여 <포르노/미디어/여성>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자료집에는 '미디어 섹스의 현안'(전석호, 중앙대 신문방송학), '포르노그라피와 표현의 자유 한계'(박형상, 변호사), '포르노, 페미니즘, 성적치환'(공미혜, 신라대 여성학), '가까워진 포르노,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김혜순, 계명대 사회학)의 발제문과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에서 지난 3년간 실시한 포르노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 본 센터의 발족 선언문 등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 가격 : 4,000원

강미정, 금철영, 김경희, 김도희, 김미경, 김미영, 김소명, 김순형, 김영미, 김영애, 김은숙, 김일륜, 김춘란, 김혜숙, 김화영, 도경숙, 맹신숙, 박미향, 박수용, 박순주, 배은경, 서천석, 송성애, 신진경, 심화란, 오은화, 우경아, 유숙영, 유승희, 육향순, 이명자, 이상근, 이석민, 이선순, 이선아, 이선이, 이은정, 이재인, 이정선, 이정아, 이진선, 이푸른매, 임자영, 전경림, 전범용, 전승완, 정경란, 정이숙, 조소연, 조정자, 조태홍, 주서현, 차재순, 최옥경, 최유정, 최정운, 홍사울, 홍성복

7월부터 9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아, 강남식, 고순례, 기 화, 김강자, 김미경, 김미숙, 김은희, 김정희, 김종구, 김지혜, 김현란, 김현식, 남순열, 노미순, 류재경, 문선경, 문효진, 민응기, 박귀자, 박미라, 박미숙, 박희경, 변인희, 심창교, 오길향, 오숙희, 오정현, 오희옥, 유수아, 유자인, 윤용미, 윤정숙, 이경로, 이경룡, 이경미, 이규화, 이미경, 이소진, 이순례, 이연실, 이영분, 이윤상, 이은심, 이철원, 이희숙, 임순영, 임종은, 장윤경, 정성광, 정유석, 정진욱, 조정현, 조중신, 최동석, 최선열, 최영애, 최지녀, 한은희, 홍승아, 홍은정,

▶ 구입문의 : 유니경미 (02)576-5450

